즉문즉설 ①

부처님 가피(구원)는 있는 것인가?



그럼 당신은 길에서 환우(조현병, 말기암, 희귀병)를 만나면 어떻게 하실건지 출가자로서 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일부 출가자들이 공영방송에서 조현병 환우를 병원에 보내야 한다,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는 등등..... 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현대불교신문에 부처님 제자가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출가자인가 라는 것에 대해 지면을 빌어 알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 8. 29. 수요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눈만 뜨면 천날 만날 말해봐야 무슨 소용 있으랴? 직접 죽음의 문턱에서 새 생명을 얻은 이 (조현병, 말기암, 희귀병)들의 사례를 직접 듣고 꼭 확인하며 질의 응답하는 야단법석의 장을 이 소승이 불교계 최초로 펼치고자 합니다.

의사라고 자임하는 이들이 말과 글로 실컷 떠들면서 수련(수행)한 결과를 환우들을 대상으로 시술(권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는 누가 뭐래도 의사가 아니다. 그것은 말장난, 글장난이고 수행을 하지 않은 결과이다.

모든 경전과 조사어록의 말씀은 실천 수행한 후 체득한 것을 중생 구제를 위해 보이고, 그에 대한 이치, 도리를 얘기하라 했다.

이생도 그렇고, 전생부터 수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 도리, 저 도리를 깨우치면 어떻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나? 진정 이 도리,저 도리를 깨우쳤다면 그에 대한 결과물인 그 권능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사례1] 담도암, 담낭암

대기업에 다니는 젊은 청년이 소납이 있는 절에 왔다. 그는 불교에 대한 의문점이 많으면서 신심은 대단했다. 건설회사 직원으로 사찰 인근에서 대형 공사를 위해 현장 사무실에 근무하며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었다.

당시 안거 중 이었고 새벽예불과 더불어 매일 육조단경을 강설하고 있었는데 기존 신도들 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몇 달 보이지 않다가 나타났는데 그 청년을 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눈과 얼굴, 피부 색깔 전체가 노랗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일명 황달이다. 몸도 야위었고, 물어보니 10kg가 빠졌다고 한다.

바로 두 스님이 인근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한 결과 여기서는 안되니 대형병원에 가보라고 하면서 검사한 내역과 소견서를 써주는 것이었다. H 대형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해 본 결과 병원 측에서 너무 늦었으니 데리고 가라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담도, 담낭 이것은 신호가 감지 됐을때는 수술할 수 있는 이도 10% 미만이지만, 수술을 한다 해도 또 살아날 확률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사의 말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것이었다.

결국 절에 데리고 와서 "네가 살고 죽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길이다." 하고 지금부터 이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다음날 새벽에 신도들이 보는데서 기도를 해 주었다.

첫날부터 혈색이 달라지고 3일이 지나니 황달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그래서 다시 근무지로 보내면 또 재현될 것이고 해서 이참에



부처님의 은덕으로 살아났으니 이 은혜를 갚기 위해 술, 담배를 끊고 출가를 하겠느냐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큰 절로 출가를 시켰다.

"너의 출가 목적은 너 스스로를 제도받기 위해 출가하는 것이다. 그러니 꼭 명심하거라." 하고 일러주고, 또 하나의 출가는 부처님처럼 오랜 겁을 지나면서 닦고 닦아서 시절인연이 되어 중생을 제도할 만한 인격체를 완전히 갖추었기 때문에 중생들을 제도키 위해 출가를 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불교의 현실은 부처님처럼 과거생 으로 부터 닦고 닦아서 때가 되어 출가한 이는 보기 드물고, 대부분 스스로 제도받기 위해 출가한 것이라 보면 될 것이다.

부처님처럼 바른 출가한 이가 있다면, 절대 비불교적인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전생부터 닦지 않고 잡귀만 하다 그 습기가 남아 있으니 이생에서도 하는 것이다.

법문 시 많이 들었을 것이다. 지금의 일이 전생의 일이고, 현생의 일이 내생의 일이다.

"어쨌든 새 생명을 얻었으니 술, 담배는 절대 멀리하고 열심히 바른 공부, 바른 실천하는 승으로 태어나길 바란다." 라 하며 출가를 시켰다.

때가 되어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다시 최고 학부에서 사회복지 석사를 마치고 지금은 박사과정을 준비 중이다. 방학이 되면 꼭 3~4일을 다녀가곤 한다.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으니 분명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다. "지금 살아 있음이 부처님의 은덕으로 숨을 쉬고 있으므로 그에 합당한 행을 하며 살겠다는 것이다. 쪽방촌, 소외계층, 빈곤자들을 위해서 그들 속에서 같이 살겠다고 하면서 방학 때 마다 쪽방촌을 찾아 그들과 같이 생활한다.

5년 전 열반하신 무진장 큰스님께서는 살아생전 거지들과 6년을 파고다공원에서 생활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런 큰스님을 닮아가고 싶다 한다.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들 원주민들과 같이 생활을 할 것이라 한다. 고 이태석 신부님처럼.....

어떤 이처럼 돈 걷어서 미얀마 등 오지지역에 학교를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 속에서 같이 생활을 하겠다고 한다. 고 이태석 신부님은 한샘(문둥병)환자들과 같이 동거동락 하지 않았는가?

그 말에 아무래도 "너는 지난 생부터 분명히 닦고 닦았기에 이생에서 그런 행을 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너는 나고 죽는 생을 반복하면서 닦은 것이 분명하다. 이생에서 잠시 시험에 들어 헤어나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삼배든, 일배든 절을 하고자 하면 나는 멀리 도망간다. "절은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하며 올 때마다 절을 하려 하면 나는 도망 다니기 바쁘다.

지금 누구보다 건강하며 승가의 일원으로서 모범적으로 수행을 잘 하고 있다.

■ 소납은 초파일을 비롯해 큰 행사시 신도님들에게 꼭 묻는 것이 하나있다. 통칭 염라대왕이 병고로 고생하는 가족(신랑, 부인, 아들, 딸)중 때가 되어 데리고 가고자 할 때 그 가족이 지극정성으로 한번만 살려달라고 염라대왕께 매달리자 "좋다, 그러면 내가 제안을 할테니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내 살려주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동전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가져온다면 내 살려주마."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는지?.....**

생명인지, 재산인지.....

대부분 여기 거제도에 있는 연등사라는 조그만 사찰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매스컴을 통해 소문만 무성한 종교집단에 재산을 거의 다 소진하고 탈진상태가 되어 반신반의하며 실제로 오는 이는 드물다.

대신 스님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즉문즉설의 장을 열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 자주 알리고 쉽지만 본 사찰은 사주, 부적, 삼재, 인등, 방생, 성지순례 등등..... 비불교적인 행위를 일체 하지 않으므로 이 지면을 통해 정법 불교를 알리는데 재정적인 문제로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말로만 하는 정법보다는 실천하는 정법인연을 맺읍시다!

불교계 최초 즉문즉설 안내

- **내용:**
  조현병, 말기암, 희귀병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을 통한 발표 및 질의응답
- **일시:**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 **장소:**
  연등사 대웅전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 **전화: 055-633-6555**
  (학장 스님 :010-9411-5302)
- **참가자격 : 누구나**

■ 당일은 개인 면담은 안 되고, 학장 스님과 협의 요망.

■ 앞으로는 재정이 해결되면 당분간 스님들 조현병 사례를 쓰고자 한다.

◆ 기도 동참하신 일부 신도님 연락처

① 010-2526-4365 (김 00)
② 010-4807-6932 (박 00)
③ 010-9707-4808 (박 00)
④ 010-6786-7495 (윤 00)
⑤ 010-3143-5302 (선현)

불.법.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

(선재불교대학)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내)

TEL. 055)633-6555